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텔레마케터가 긴급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원치 않는 판매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아무 일이 없는 날 텔레마케터로부터 걸려 온 전화는 성가신 일입니다.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두에게 더 안전한 엠펜라이어 스테이트를 만들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긴급 상황 발생 선언 시 텔레마케터들이 의도적으로 도시, 카운티, 타운 또는 마을의 모든 개인에게 원치 않는 판매 전화를 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117A/S.4020A)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날 텔레마케터로부터 걸려 온 전화는 성가신 일입니다. 이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두에게 더 안전한 엠펜라이어 스테이트를 만들 것입니다."

공개 통신 라인은 긴급 상황 중에 긴급 알림 및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이변이 새로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다른 긴급 상황에 대응함에 따라 이러한 대응책을 통해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하고 긴급 상황 시 개인에게 텔레마케팅 호출이 끊임없이 몰려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Kevin Thomas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일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어려운 일입니다. 뉴욕 주민은 자신의 가족 안전에 집중하는 데 피해를 주는 전화로 방해받아서 안됩니다. 이 중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David Buchwald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심한 폭풍이나 다른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주민들은 바깥세상과 연결하는 공개 통신 라인이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주민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텔레마케터로부터 방해받는 전화입니다."

이러한 과립치한 텔레마케터의 행동을 억제하는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